

보도시점 2025. 4. 7.(월) 14:00 배포 2025. 4. 7.(월) 10:00

## 「아세안+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」 참석

- 역내 금융안정 및 협력을 위한 주요 이슈 논의

4.8일(화)~9일(수)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「아세안+ 3 (한·일·중)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(ASEAN+ 3 Finance and Central Bank Deputies' Meeting)\*」와 「한일중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\*\*」가 개최된다.

\* 아세안+3 회의 공동의장국: 중국, 말레이시아 / \*\* 한일중 회의 의장국: 중국

※ 아세안 10개국. 브루나이, 캄보디아, 인도네시아, 라오스, 말레이시아, 미얀마, 필리핀, 싱가포르, 태국, 베트남

이번 회의는 5.4일(일)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되는 「아세안+ 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(ASEAN+ 3 Finance Ministers' and Central Bank Governors' Meeting)」에 대비해 주요 의제들을 최종 점검하는 회의다. 본 회의에서는 세계 및 역내 경제동향과 정책대응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, 역내 금융안전망으로서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(CMIM\*) 발전 방향 등 역내 금융협력 관련 주요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.

\*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: ASEAN+3 역내 회원국 위기시 유동성 지원을 위한 다자간 통화스왑(총 2,400억불 규모, 우리나라 분담금 384억불(분담비율 16%))

우리나라에서는 기획재정부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여, 우리나라가 '24년도 아세안+ 3 회의 의장국으로서 합의를 이끌어내었던 신속 금융프로그램 도입, 재원구조 방식 변경 등 CMIM의 실효성 제고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계획이다. 나아가 5월 아세안+3 장관회의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회원국들과 적극 협력할 것이다.

담당 부서	국제금융국 금융협력과	책임자	과 장	심승현 (044-215-4830)
		담당자	사무관	윤현곤 (gonnnn@korea.kr)